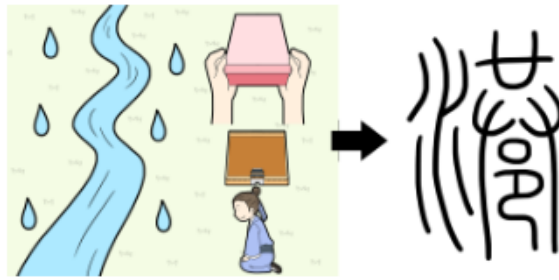


4(2)
-
231

회의문자㉠



港

항구 항:

港자는 '항구'나 '강어귀', '벚길'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港자는 水(물 수)자와 巷(거리 항)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巷자는 共(함께 공)자와 邑(병부 절)자가 결합한 것이지만 소전에서는 共자와 邑(고을 읍)자만이 결합해 있었다. 그러니 巷자는 사람들이 "함께(共) 모여 사는 마을(邑)"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水자가 더해진 港자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물가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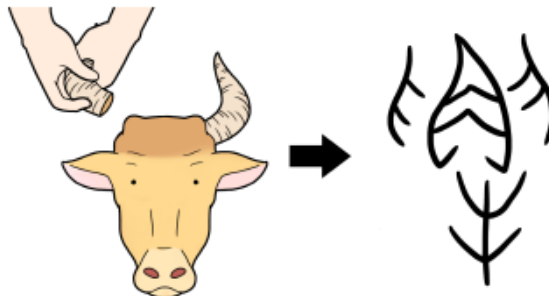
소전

港

해서

4(2)
-
232

회의문자㉠



解

풀 해:

解자는 '풀다'나 '깨닫는다', '벗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解자는 角(뿔 각)자와 刀(칼 도)자, 牛(소 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角자는 소의 뿔을 그린 것이다. 여기에 刀자가 더해진 解자는 칼로 소의 뿔을 해체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갑골문에 나온 解자를 보면 牛자 위로 뿔을 감싸고 있는 양손이 𠂔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소의 뿔을 잘라 해체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금문에서는 양손 대신 刀자가 쓰이면서 '해체하다'라는 뜻을 좀 더 명확히 표현하게 되었다.

解

갑골문

解

금문

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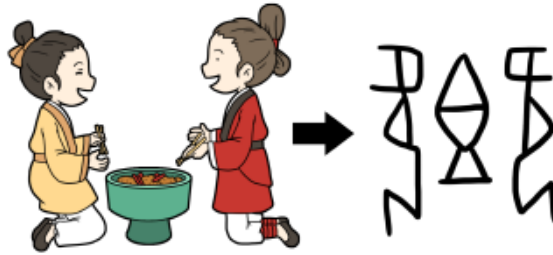
소전

解

해서

4(2)
-
233

상형문자①



鄉

시골 향

鄉자는 '시골'이나 '고향'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鄉자는 매우 복잡한 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鄉자를 보면 식기를 두고 양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飠(식)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사람을 초대해 술과 음식을 대접한다는 뜻이다. 금문에서는 심지어 음식을 건네주는 夨(손) 모습까지 표현되어있었다. 鄉자는 이렇게 사람을 초대해 '잔치를 한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지만, 후에 정감이 넘치는 마을이란 뜻이 파생되면서 '고향'을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소전에서는 鄉자에 食(밥 식)자를 더한 饗(잔치할 향)자가 따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鄉

갑골문

鄉

금문

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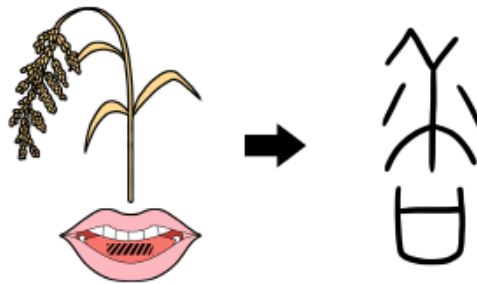
소전

鄉

해서

4(2)
-
234

회의문자①



香

향기 향

香자는 '향기'나 '향기롭다', '감미롭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香자는 禾(벼 화)자와 日(가로 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香자를 보면 口(입 구)자 위로 벼가 禾 그려져 있었다. 마치 입으로 벼를 먹고 있는 듯한 모습과도 같다. 香자는 이렇게 밥을 먹는 모습으로 그려져 '향기롭다'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이다. 밥을 짓는 향기나 밥맛이 '감미롭다'라는 뜻이다. 香자는 부수로의 활용은 낮아 거의 단독으로만 쓰이고 있다.

香

갑골문

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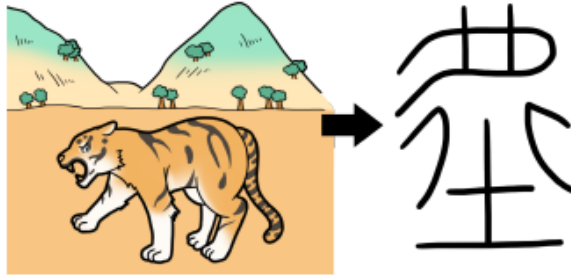
소전

香

해서

회의문자①

4(2)
-
235



虛

빌 허

虛자는 '비다'나 '공허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虛자는 虎(범 호)자와 丘(언덕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丘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𡵓자로 바뀌기 때문에 虛자는 丘자가 결합한 것으로 풀이해야 한다. 丘자는 '언덕'을 뜻하는 글자이다. 그러니 虛자는 마치 호랑이가 언덕에 있는 듯한 모습이다. 맹수의 왕이 나타났으니 모두 도망가기 바쁠 것이다. 그래서 虛자는 드넓은 언덕에 호랑이가 나타나자 모두 사라졌다는 의미에서 '비다'나 '없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虛

금문

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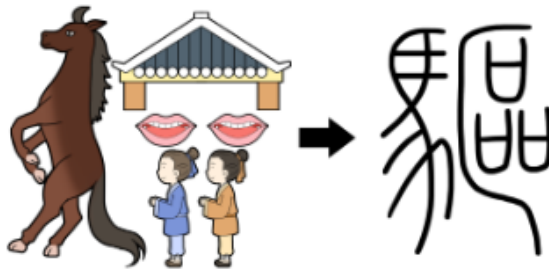
소전

虛

해서

형성문자①

4(2)
-
236



驗

시험 험:

驗자는 '시험하다'나 '검증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驗자는 馬(말 마)자와 驗(다 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驗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험→험'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驗자는 본래 '말의 종'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어떤 종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가장 선호하던 말의 한 종을 뜻했던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말은 종에 따라 체력이나 신체조건이 다르다. 그래서 말을 거래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시험해보기 때문에 驗자는 말의 한 종을 뜻하다가 점차 '시험하다'나 '검증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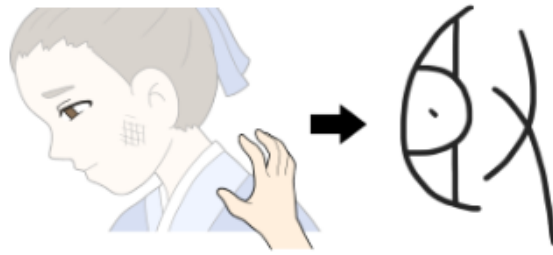
소전

驗

해서

4(2)
-
237

회의문자①



賢

어질 현

賢자는 '어질다'나 '현명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賢자는 𡵓(어질 현)자와 貝(조개 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𡵓자는 신하가 일을 능히 잘 해낸다는 의미에서 '어질다'나 '현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본래 '어질다'라는 뜻은 𡵓자가 먼저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사람이 어질고 착해 재물까지 나누어 줄 정도라는 의미가 반영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貝자가 더해진 賢자가 뜻을 대신하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4(2)
-
238

상형문자①



血

피 혈

血자는 '피'나 '물들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血자는 皿(그릇 명)자 위로 점이 하나 찍혀 있는 모습이다. 여기서 점은 '핏방울'을 뜻한다. 그러니 血자는 그릇에 핏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그릇에 피를 받는 것일까? 고대에는 소나 양의 피를 그릇에 받아 신에게 바쳤다고 한다. 血자는 당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방식을 이용해 '피'를 뜻하게 글자이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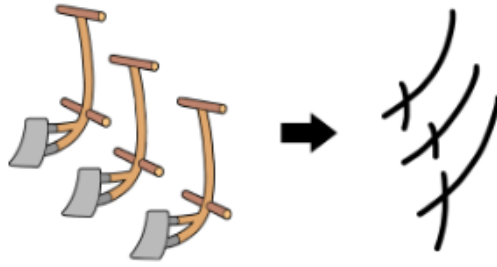
소전



해서

4(2)
-
239

회의문자 ①



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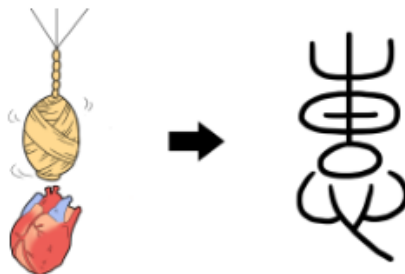
화합 협

協자는 '화합하다'나 '돕다', '협력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協자는 十(열 십)자와 세 개의 力(힘 력)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力자는 '힘'이라는 뜻이 있지만, 본래는 밭을 가는 농기구를 그린 것이다. 그런데 協자의 갑골문을 보면 세 개의 力자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힘을 합치다'라는 뜻의 劦(힘 합할 협)자이다. 劦자는 농기구를 들고 여럿이 힘을 합쳐 밭일한다는 뜻이었다. 소전에서는 여기에 十자가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여럿이 하나의 목표에 협력한다는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였다.

갑골문	소전	해서

4(2)
-
240

회의문자 ①



惠

은혜 혜:

惠자는 '은혜'나 '사랑', '자애'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惠자는 心(마음 심)자와 惠(오로지 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惠자는 실을 감아두던 '방추(紡錘)'를 돌리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은혜나 사랑이 방추를 돌리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은혜'나 '사랑', '자애'란 남에게 베푸는 선한 마음을 말한다. 그래서 惠자는 실을 푸는 모습을 그린 惠자에 心자를 결합하여 선한 마음을 베푼다는 뜻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惠자는 실을 푸는 모습을 선한 마음을 베푸는 것에 비유한 글자라 할 수 있다.

금문	소전	해서